

김윤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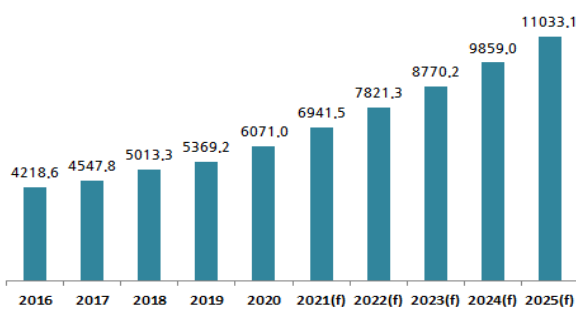
요약

채식인구 증가로 베지노믹스(Vegenomics)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등장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채식주의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미국, 이스라엘 등 채식주의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식주의자 또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 사례가 있음. 채식주의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식단 및 식습관 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장치가 필요할 것임

○ 국내외 채식주의¹⁾ 증가로 베지노믹스(Vegenomics)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등장하며 채식식품²⁾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채식주의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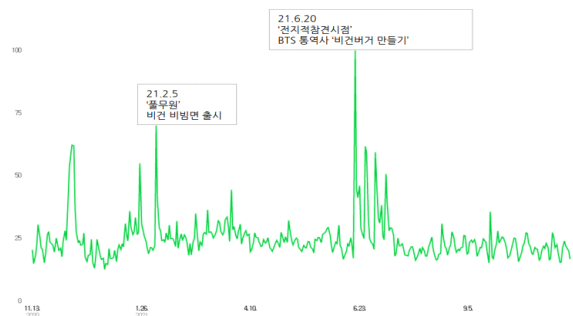
- 전 세계 채식주의자는 1억 8천만 명으로 미국(927만 명), 독일(738만 명, 인구의 약 9%), 영국(366만 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는 150만 명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음³⁾
- 글로벌 채식식품 시장은 아직 초기 형성 단계에 있으나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건강,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채식주의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그림1, 2〉 참조)
 - 글로벌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0억 달러(7조 3천억 원)로 2016년 대비 43.9% 성장하였고, 최근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식물 기반(plant-based) 상품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외 보험업계에서도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음

〈그림 1〉 글로벌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Market Data(2021); 농림축산식품부·aT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2022. 2)

〈그림 2〉 국내 채식주의 관련 상품·이슈 검색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2)

1) 가장 엄격한 단계의 순수 채식주의자(Vegan)부터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과 같이 경우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채식주의자까지 포함
 2) '비건인증식품'(채식주의별 단계에 따른 식습관에 맞추어 인증받은 식품)과 '대체육' 시장으로 구성됨
 3) 농림축산식품부·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2),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비건식품"

- 건강보험·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채식주의자의 식단이나 식습관이 건강(질병 위험률, 수명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험인수 과정 등에 반영할 수 있음⁴⁾
 - 여러 연구에서 채식주의와 질병 위험률, 수명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채식 위주 식단(plant-based diet)을 유지하는 사람의 질병 및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⁵⁾
 - 특히, 채식주의자들은 사망 위험성이 높은 질병(심장질환, 당뇨, 특정 암, 대사증후군, 고혈압성 질환)에 대해 일반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과 위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⁶⁾
 - 이처럼 채식 식단이 사망 위험이 높은 질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생명보험 제공자는 위험을 평가하고 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 채식주의 등의 식습관 정보를 하나의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계약자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 질병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 향상 유인을 제공하고 보험소비자의 보험사용 경험을 우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채식주의자 또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 사례가 있음
 - 미국 생명보험사 Health IQ는 의료검사 및 질문지를 통한 병력 체크와 더불어 채식주의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Vegan IQ 퀴즈 결과를 종합한 점수를 바탕으로 채식주의자에게 기존 보험 대비 4~33% 낮은 보험료를 적용함⁷⁾
 - 이스라엘(채식주의자가 인구의 8%를 차지함) 생명보험사 Clal Insurance는 VPL(Vegan Pay Less) 이니셔티브를 통해 VPL 건강선언문에 서명한 이스라엘 채식주의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⁸⁾
 - 미국 생명보험사 John Hancock의 헬스케어 서비스 Vitality Program은 채식 위주의 식료품을 구매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또는 식료품 구입 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함⁹⁾

- 채식주의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식단 및 식습관 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장치가 필요할 것임¹⁰⁾
 - 식습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쇼핑 앱으로 구입한 식료품 목록을 영양 지수로 환산하거나 헬스케어 앱 내 식단 기록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앱을 다른 사람(예. 가족)과 함께 사용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영양 지수가 왜곡될 수 있고 보험가입자가 허위로 내용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 Swiss Re(2020. 11), "Eat this, not that?"

5) Harvard Medical School(2020. 11), "Eat more plant-based proteins to boost longevity"; Kim et al(2019. 8), "Plant-Based Diets Are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Incident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and All-Cause Mortality in a General Population of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6) Gen Re(2022. 2), "Food, the Daily Medicine?"

7) Forbes(2017. 11), "This Life Insurance Start-Up Has Quietly Raised \$81 Million To Give Cheaper Rates To Vegans, Runners And Yogis"; <https://www.healthiq.com/life-insurance/vegan>

8) VegNews(2018. 2). "Insurance company now offers vegans lower rates"; <http://www.veganspayless.com/>

9) PETA(2019. 1). "Life insurance company rewards customers for eating more veggies"

10) Gen Re(2022. 2)